

[전라도]



“퇴임 후 ‘전관예우’ 싫어 변호사 활동 포기”

김정길(70) 전 법무부장관은 두 차례의 장관 재임기간 동안 준법운동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정행정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 해낸 일 중 우선 준법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각 지자체와 지역실정에 맞는 준법실천과제를 선정 ‘범국민준법운동’을 펼쳤고 이와는 별도로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벌였다.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신뢰사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준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였고 2002년은 월드컵이 열린 해여서 준법 정신을 고양하고자 했어요. 그 결과 당시 매년 교통사고로 1만2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월드컵 때는 절반 수준까지 줄었어요.”

김 전 장관은 또 교정 행정 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법무장관 취임 후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가 소년원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소년원생들을 상대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1999년 9월부터 전국 12개 소년원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어학실 338석과 컴퓨터 1천715대를 투입, 종합 정보처리교육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25명과 자원봉사자 등 240여 명의 전문강사가 2천200여 명의 학생에게 투입된 결과, 실용영어교육을 받은 원생이 전국 고등

장관시절 소년원 교육 대대적 혁신

최첨단 어학실·정보처리센터 설치

학교 영어용변대회에서 우수상을 타는가 하면 뇌원 하가를 받은 원생이 정보기술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가정에 돌아가기를 미룰 정도였습니다.”

특히 소년원의 정보화 교육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주) 영진닷컴에서는 8억5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도서를 지원했고 삼성SDS에서는 5억원 상당의 컴퓨터를 기증했다. 또 2000년 6월에는 세계 최고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출입국 행정 개선에도 열정을 기울였다.

“해마다 한국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출입국 행정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관광협회의 이야기를 듣고 2002년 시작했어요. 친절·신속·안전을 원칙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어요. 심사대 카드를 없애고 복장을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바꿨지요.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심사대를 대폭 늘렸으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도 키우도록 했지요. 그 결과로 출입국 심사 부문에서 인천국제공항이 2004년 7위에 이어 2005년에는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화려한 경력을 앞세워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포기했다.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한 후에 변호사를 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후배 법조인에게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이지요. 대신 조그만



지난 2001년 2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김정길 장관이 지하철에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그는 외국어 공부에도 집중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30분에 시작하는 중국어 학원에 다녔다. 그리고 두 시간의 중국어 수업을 마치면 인근 영어학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중국어학원에 다니게 된 것은 대학 후배인 김기재 전 행자부장관이 같이 다니자고 하면서부터다.

김 전 장관이 “영어는 세계공용어로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해야

국내 최초 부가세법으로 박사학위

“지금은 새벽에 중국어 학원 다니죠”

합니다. 형님은 영어와 일본어는 잘하시니 이제 중국어만 하시면 전 세계인과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고 권유해 함께 다니게 됐다고 한다. 영어공부는 요즘에도 계속하고 있다. 매일 5시30분에 일어나 영어회화 방송을 듣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영어학원으로 간다.

“영어회화 학원에 처음 접수하려 간 날 15분 정도 네이티브 스피커와 면접을 통해 수준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외국인 강사가 대뜸 ‘왜 영어를 배우러 오느냐. 당신 정도면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물더군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고 답했어요.”

그는 일본어도 수준급이다. 해방 즈음에 교육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 후 일본 원서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대 사법대학원에 다니면서는 일본어 학원을 따로 다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올 9월에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로 임명받아 내년부터는 부과세 분야의 강의로 맡을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라도 역사 이야기

-마이산과 죽도

중생대 형성된 말 귀 모양의 산

죽도, 정여립 기축옥사의 진원지

〈조선시대 사상가〉

무주, 진안, 장수 세 고장은 전라도 속에 강원도로 옮겨질 정도로 두고두고 이름이 있다. 진리분야에서는 남부지방의 지붕 ‘진안고원’이라고 부른다. 그 중 압권은 진안군에 위치한 마이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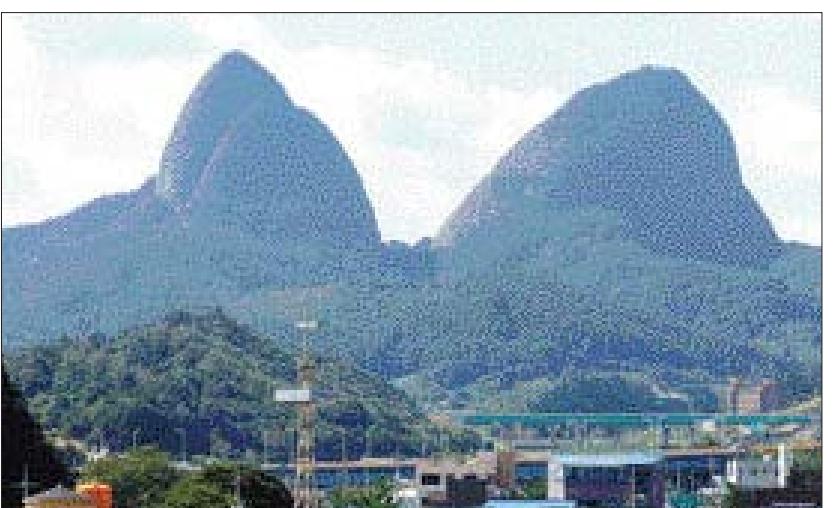
진안(鎮安)은 757년 이전에는 난진아(難珍阿), 진아(珍阿), 월랑(乙良), 월랑(越浪)으로 불렸다. 모두 솟구쳐 오른 산봉네를 뜻하고, 마이산을 의미한다.

쌍봉 마이산은 주위 산에 비해 특이한 모양을 이루며 유별나게 눈에 띈다. 삼국시대 서다(西多)산, 고려 때 용출(湧出)산과 속금(束金)산, 조선 초기 말 귀를 닮았다고 보아 ‘마이(馬耳)산’이라 명했다.

별명으로는 빽대봉, 용각(龍角)봉, 마이봉, 문필(文筆)봉과 함께 나비 날개로 풀어 호접(胡蝶)봉, 내외간으로 보아 부부봉으로도 불린다. 음양으로 암마이봉(673m)과 수마이봉(667m)으로 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빠봉과 엄마봉이다.

마이산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루며, 산태극·수태극의 중심지다. 1억년 전 중생대 때 담수호에 대홍수가 나 모래와 자갈이 쌓여 형성된 역암(礫岩)이 바탕이다.

암마이봉 남쪽에는 벌집 또는 천연두의 흔적처럼 올쭉 펴인 구멍이 많다. 주로 빙하기 동결 융해 작용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지형학에서는 ‘타포니(Taffoni)’라고 한다.



진안군청에서 바라본 마이산 전경.

암·수봉 사이 천황문 남쪽 아래 은수사와 탑사가 있다. 특히 탑사는 암체에서 떨어져 나간 돌로 쌓은 외줄과 원주형탑이 명물이다. 이갑용(1860~1957)처사의 역작으로 본래 108기였으나, 현재 80여기가 남아 있다. 1979년 도립공원, 2003년 국가지정 명승 제12호로 지정됐다.

진안읍내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천반산(647m) 아래 대섬(竹島·죽도)이 있다.

죽도는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인 ‘기축옥사’의 진원지다. 정여립은 1546년 전주색장동 파초에서 동래정씨 희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정여립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전주와 진안을 중심으로 사회체제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을 모아 새로운 세상 곧 ‘대동(大同)세상’을 만들 것을 꿈꾸었다고 한다. 군사를 동원, 헌성을 점령하려는 역모는 황해감사 한준의 비밀장계로 들통이 나고, 정여립은 죽도에서 자결했다.

선조와 위관(委官)으로 임명된 송강 정철에 의해 정개청을 비롯하여 이발, 백유양, 최영경, 한백겸, 조대중, 김방, 정언신 등이 죽었다. 정여립과 관계가 있거나, 동인이라는 이유로 1천여 명이 처형된 대옥사였다. 호남은 반역의 땅으로 낙인찍힌다.

남명과 화담학파의 영향을 받아 공화정을 이루어하려는 정여립의 사상과 실천이 서인들에 의해 모반사건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있다. 당쟁의 결과가 낮은 비극으로 본 것이다. 역사는 교훈이 되지만, 비극은 되풀이 된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 412번 ■ 광주TV 통주 42번 광주 43번 나주 50번 새남전 55번 담양 45번



영 흔을 시로하는 신

광주 CBS TV

날마다 소통하세요
문화는 삶입니다
문화는 자연입니다
문화는 사랑입니다

TV광주



TV광주



TV광주



TV광주

